



‘푸스카스상’ 손흥민 연말 ‘최고의 선물’

손흥민(28·토트넘)이 “평생 못 잊을, 아주 특별한 밤”을 보냈다.

손흥민은 최근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FIFA 본부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 ‘더 베스트 FIFA 풋볼 어워즈 2020’ 시상식에서 푸스카스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 선수가 푸스카스상을 받은 것은 손흥민이 처음이다.

아시아 선수로는 2016년 모하메드 파이즈 수브리(말레이시아)에 이은 역대 두 번째 수상이다.

푸스카스상은 헝가리 축구의 전설인 고(故) 페렌츠 푸스카스의 이름을 따 2009년 제정한 상이다. 대회, 성별, 국적에 상관없이 한 해 동안 축구 경기에서 나온 골 중 최고를 가려 시상한다.

손흥민은 지난해 12월 번리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넣은 환상적인 골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당시 토트넘 진영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은 약 70m를 혼자 내달리며 무려 6명의 번리 선수를 따돌린 뒤 페널티 지역에서 오른쪽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이후 이 골은 EPL ‘12월의 골’을 시작으로 영국 공영방송 BBC의 ‘올해의 골’, 영국 스포츠

‘더 베스트 FIFA 풋볼 어워즈’

번리전 70m 질주 골

한국 선수 첫 수상

손 “평생 못 잊을 특별한 밤”

츠매체 디에슬레틱의 ‘올해의 골’에 이어 EPL 사무국이 선정하는 2019-2020시즌 ‘올해의 골’ 등으로 선정되며 최고의 골로 인정받았다.

FIFA는 지난달 후보 11명을 발표한 뒤 지난 12일 손흥민과 함께 히오르히안 데 아라스카에타(플라멩구), 루이스 수아레스(바르셀로나)를 최종 후보 3인에 올려놓았다.

최종 수상자는 팬(50%)과 축구전문가 패널(50%)의 투표를 합산한 점수로 뽑았다.

FIFA가 발표한 투표 결과에 따르면 손흥민은 전문가 투표에서 13점, 팬 투표에서 11점을 받아 총 24점을 얻었다.

팬 투표에서는 가장 많은 13점을 얻은 데 아라스카에타가 22점으로 뒤를 이었다. 수아레스는 전문가 투표 11점, 팬 투표 9점으로 20점을 획득했다.

손흥민은 수상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주 특별한 밤이다. 투표하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절대 잊지 못할 것”이라고 적었다.

손흥민은 이날 화상으로 시상식장과 연결된 인터뷰에서도 “최고다, 정말 기분 좋다”고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우리 진영에서 공을 잡았을 때 패스하는 게 좋은 선택이었지만 마땅히 골을 줄 곳을 찾지 못해 드리블하기 시작했다”면서 “몇 초 만에 골문 앞에 도착했고, 정말 놀라웠다. 너무 아름다운 골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되돌아봤다.

“패스할 곳을 찾지 못했다”는 말에 이날 행사의 진행을 맡은 네덜란드 축구 국가대표 출신의 스타 윌트 굴리트는 “동료들을 비난하는 거냐”고 웃으며 물었다.

그러자 손흥민은 “아니다”라며 웃음을 터트렸다.

손흥민은 이어 “엄청난 드리블로 대단한 골을 넣었다. 팀을 위해서도 그랬다. 당시에는 얼마나 놀라운 골인지 몰랐는데 경기가 끝나고 다시 보면서 정말 특별한 골을 넣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메시, 펠레와 어깨 나란히

프리메라리가 발렌시아전서 643번째 골... 단일 구단 최다골 타이

리오넬 메시(33)가 스페인 프로축구 FC 바르셀로나에서 자신의 643번째 골을 터트려 ‘축구 황제’ 펠레와 단일 구단 최다 골 타이 기록을 썼다.

메시는 20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캄노우에서 열린 발렌시아와 2020-2021시즌 프리메라리가(라리가) 14라운드 홈 경기에서 팀이 0-1로 끌려가던 전반 49분 헤딩 동점 골을 터트렸다.

바르셀로나 유스팀을 거쳐 2004년 1군에 데뷔, 2005년 5월 1일 바르셀로나 데뷔골을 넣은 그는 17시즌 동안 ‘익클럽맨’으로 총 748경기를 뛰며 643골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했다.

이는 펠레가 1956년부터 1974년까지 자국 브라질의 산투스에서 뛰며 세운 단일 구단 최다 골(643골)과 타이이다.

펠레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메시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펠레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신처럼, 나도 매일 같은 유니폼을 입는 것을 좋아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안다. 집처럼 느껴지는 곳보다 편한 곳은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역사적인 기록을 축하한다. 무엇보다 바르셀로나에서 아름다운 업적을 세운 것을 축하한다”고 적었다.

그는 “한 구단을 오랫동안 사랑하는, 우리와 같은 이야기는 불행히도 축구계에서 점차 보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당신을 매우 존경한다”고 덧붙였다.

골과 함께 펠레는 “젊은 골 세리머니를 펼치는 자신과 메시의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

펠레는 1970년 멕시코 월드컵 브라질과 이탈리아의 결승전에서 선제골을 넣고는 동료의 품에 안겨 한쪽 주먹을 높이 들어 올렸고, 메시는 지난해 2월 개인 통산 50번째 헤트트릭을 달성한 세비야전에서 우스만 뎀벨레의 품에 안겨 같은 모습으로 주먹을 불끈 쥐었다.

바르셀로나는 이날 발렌시아와 2-2로 비겼다.

바르셀로나는 후반 7분 로날드 아라우호의 추가 골로 2-1 역전에 성공했지만, 후반 24분 막시 고메스에게 동점 골을 허용해 승점 1을 나눠 갖게 됐다.

한편 발렌시아에서 뛰는 이강인은 이날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후반 45분 투입돼 복귀전을 치렀다. 최근 코로나19에 걸렸다 회복한 것으로 알려진 이강인은 지난달 23일 알라베스전 이후 약 한 달 만에 그라운드를 밟았다.

/연합뉴스

울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



울산현대가 지난 19일 카타르 알 자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AFC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페르세폴리스를 2-1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한 뒤 김도훈 감독이 행거라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드래곤즈 ‘되돌아 본 2020’

특집 다큐 3부작 제작... 유튜브서 다음달 3일까지 순차 공개

전남드래곤즈가 2020시즌을 돌아보는 특집 다큐 3부작을 제작했다.

‘역경 딛고 일어서 희망 찾다’라는 주제로 제작된 다큐는 ‘고뇌’, ‘노력’, ‘희망’ 총 3편으로 구성됐으며, 20일 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1부가 공개됐다.

2부와 3부는 각각 오는 27일 오후 8시, 내년 1월 3일 오후 8시에 방영된다.

전남의 2020시즌 ‘희로애락’이 영상에 담겼다. 전남은 올시즌 K리그2 27경기에서 8승 14무 5패(승점 38점)를 기록하며 6위로 시즌을 마쳤다.

총 31골을 득점한 전남은 ‘잔물수비’로 25골밖에 내주지 않으면서 ‘우승팀’ 제주유나이티드(23실점)에 이어 최소 실점 2위에 올랐다.

한때 리그 3위까지 치고 올라가며 플레이오프 목표에 다가섰지만, 11월 21일 서울이랜드와의

최종전에서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서 4강행에 실패했다.

이번 시즌은 ‘도전의 시즌’이기도 했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 개막이 3월에서 5월로 늦춰졌고, 시즌 최종전도 대전 선수의 코로나19 감염여파로 11월 7일에서 11월 21일로 미뤄졌다.

빠듯한 일정 속 부상자가 속출하고, 체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고잡’ 최효진, ‘주장’ 김주원을 중심으로 선수들은 하나가 돼 시즌을 성공적으로 완주했다.

수비 안정화를 통해 전남의 팀컬러를 다시 재연전 감독은 2년 재계약에 성공했다.

전남은 영상을 통해 고뇌로 시작해 역경을 딛고 4강에 도전했던 한 시즌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즌 희망을 찾을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

ACL 결승, 이란에 2-1 승리

국내리그 ‘더블 준우승’ 아쉬움 날려

윤빛가람 4골 3도움 ‘MVP’

울산현대가 마지막에 웃었다.

울산현대는 지난 19일 카타르 알 자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결승전에서 페르세폴리스(이란)를 2-1로 누르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울산은 전반 추가시간 페르세폴리스의 압디카라에게 실점을 허용했지만, 윤빛가람이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동점의 기회를 잡았다.

키커로 나선 주니오가 골키퍼가 막아낸 공을 다시 밀어 넣으며 1-1 동점을 만들었다. 후반 9분에는 주니오가 다시 페널티킥에 성공하며 승리를 견인했다.

2012년 이 대회 첫 우승을 차지했던 울산은 8년 만에 왕좌 탈환에 성공했다. 올 시즌 두 차례 준우승의 아쉬움을 한 방에 날리는 우승이기도 했다.

K리그1 1위 질주를 했던 울산은 전북 현대에게

막판 역전을 당하여 정규시즌 우승컵을 내줬다. 대한축구협회 FA컵을 놓고 벌인 맞대결에서도 전북의 벽을 넘지 못하며, 울산은 전북의 ‘더블’을 눈앞에서 지켜보아야 했다.

올 시즌 두 차례나 아쉬움을 곱씹어야 했던 울산은 마지막 순간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와 함께 ‘50억원’이라는 가뭄뚫을 쟁취하게 됐다.

대회 우승 상금만 해도 400만달러(약 44억원). 울산은 또 이번 대회 4경기까지 8승 1무(승리 시 5만 달러, 무승부 시 1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41만 달러(약 4억5000만원)의 성적보너스를 챙겼다. 6강 10만 달러, 8강 15만 달러 4강 25만 달러 등 50만 달러(약 5억5000만원)의 출전수당까지 하면 54억원이 넘는 상금을 받아들였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울산은 이번 대회 우승팀 자격으로 내년 2월 1~11일 카타르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에 참가하는데, 클럽월드컵 참가수당이 기본 100만달러(약 11억원)다.

AFC가 ‘AFC 드림 아시아 재단’의 기금 명목으로 대회 우승·준우승 상금의 5%를 떼어가는 것을 계산해도 울산은 50억원이 넘는 상금을 가져가게 된다.

울산은 이번 대회에서 조별리그 첫 경기부터 마지막 결승전까지 9승 1무, 무패행진을 달리며 결승선을 통과했다. 23득점(경기당 2.3골)의 막강 화력도 과시했다.

올 시즌 K리그1에서 26골을 몰아넣으며 득점왕에 오른 울산의 ‘골무왕’ 주니오가 이번 대회에서도 7골 1도움을 기록, 알 나스르(사우디 아라비아)의 합달라와 가장 많은 골을 넣었다.

윤빛가람은 4골 3도움의 활약으로 팀의 무패행진을 이끌며 대회 MVP에 등극했다.

한편 김도훈 감독은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끝으로 울산과 약속된 4년을 마무리했다.

지난 2017시즌을 앞두고 윤정환 감독의 후임으로 부임한 김도훈 감독은 지난 4년 동안 K리그 196경기에서 106승 50무 40패의 성적을 냈다.

부임 첫해 구단 역사상 첫 FA컵 우승 트로피를 차지한 김 감독은 매 시즌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하며 아시아 무대에서 울산을 알렸다. 그리고 김 감독은 계약 마지막 해 구단 역사상 두 번째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이자 두 번째 무패 우승을 선물하며 울산과 아름다운 동행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